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과 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의 재편* - 글로벌 가치사슬 이론적 접근 -

이항영** · 이준구***

요 약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중국의 대미 수출은 매해 기록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반면에 아시아 선발산업국들의 대미 수출은 2001년 이후 정체 또는 감소 추세를 보여 왔다. 본 논문은 2001년 이후 중국의 대미 수출 확대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대미 수출 축소의 이면에는 단지 중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산업경쟁력의 변화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화(globalization)의 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2001년 이후 아시아 선발 산업국들은 중국의 전자통신 사업에 대한 해외투자 허용을 계기로 중국 현지에서 생산조립공장을 설립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기존의 아시아 선발 산업국들과 중국 간의 국제 분업구조를 새로이 정립하였다. 즉, 아시아 선발 산업국에서 생산된 첨단부품들이 중국에서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여 조립된 후 해외로 수출되는 새로운 아시아 생산네트워크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본 논문은 U.N. Comtrade 등 여러 무역 자료들을 바탕으로 2001년 이후 중국 및 아시아 선발 산업 국가들의 무역양상 변화는 아시아 생산네트워크의 재편과 관련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글로벌 가치사슬 이론적 시각에서 본다면 중국의 대미 수출 증가, 아시아 선발산업국들의 대미 수출 감소, 그리고 아시아 선발산업국들의 대중 수출 증가는 결국 하나의 원인, 즉 전자통신 산업 생산기지의 중국 이전으로부터 비롯된 다양한 결과 중 하나일 뿐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액 중 상당 부분의 가치는 사실 다른 아시아 선발산업국에서 창출된 것이다. 따라서 최근 중국의 이례적인 대미 무역흑자의 상당 부분 역시 아시아 선발 공업국에 귀속되어야 할 부가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대미 흑자 규모에 대한 과도한 경계, 그리고 아시아 선발공업국의 대미 흑자 축소에 대한 과도한 우려 역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아시아 생산 네트워크, 글로벌 가치사슬 이론, 무역, FDI

* 심사과정에서 세심하고도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신 익명의 논평자분들에게 감사 드린다. 상세한 논평과 제안들이 본 논문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 듀크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교신저자, E-mail: hangyoung.lee@soc.duke.edu)

*** 듀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사후 연구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매해 기록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2000년 833억 달러였던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2005년 2,025억 달러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2,730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2010년 미국의 무역 적자 중 대중 무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2.3%에 달한다(U.S. Census Bureau, 2011). 이와 같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의 가파른 상승세는 미국 경제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낳음으로써 기축통화로서 달러에 대한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결국 세계경제의 불안 요소를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의 급격한 확대는 2001년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의 급격한 증가 추세와 맞물려 있다. 그 증가 추세의 원인으로는 WTO 가입 이후 중국 제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이 증가한 반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하락하였다는 점, 그리고 중국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위엔화를 의도적으로 평가절하시킴으로써 중국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해 오고 있다는 점 등이 주로 지목된다(Naughton, 2007).

2001년 이후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부상은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2004년 20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2004년 흑자의 절반에 불과한 100억 달러까지 감소하였다(U.S. Census Bureau, 2011).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 원인으로서 한국 수출 산업의 상대적 경쟁력 약화가 주로 언급되고 있다(유진석, 2001; 한진희·최용석, 2008). 하지만 흥미롭게도 2001년 이후 대미 무역 흑자의 감소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선발 공업국들도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 2007년 897억 달러를 기점으로 이후 대미 무역 흑자의 폭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대만, 싱가포르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U.S. Census Bureau, 2011).

본 논문은 2001년 이후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폭의 확대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대미 무역 흑자 폭의 축소의 이면에는 단지 중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산업경쟁력의 변화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화(globalization)의

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2001년 이후 아시아 선발 공업국들의 대중국 해외투자가 급격히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전자통신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의 아시아 생산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다시 말하면 아시아 선발 공업국들이 자국의 전자통신 산업의 조립생산 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함으로써 그들이 기존에 본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던 최종생산물이 2001년 이후 점점 더 중국으로부터 수출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2001년 이후 중국의 대미 무역의 급격한 확대, 그리고 다른 아시아 선발공업국들의 대미 무역 정체 내지 축소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중국이 저임금에 바탕을 둔 노동집약적 상품을, 아시아 선발 공업국들이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인 기술집약적 상품을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 수출을 하던 기존의 국제분업구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최종 수출되고 있는 첨단산업 제품들이 중국의 자체적 기술 발전에 따라 중국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첨단제품 수출 이면에는 2000년 이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치사슬의 분절화를 통한 생산기지의 지리적 재구축 (geographical reallocation of production bases through slicing value chains)”이 자리잡고 있다. 본 논문은 다양한 경험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최근 선발 아시아 공업국들과 중국 간에 진행되고 있는 생산과정에 있어 새로운 국제적 분업 양상을 설명하고, 이의 출현이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선진국 시장으로의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대미 수출 통계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이론(global value chain theory)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를 통해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 간의 새로운 국제생산 분업구조를 들여다 볼 것이다. 두 번째 장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 이전과 이후의 중국 및 아시아 선발 공업국들의 대미 수출 양상, 그리고 동기간 아시아 선발 공업국들의 대중 수출 양상을 살펴 볼 것이다. 세 번째 장에서는 두 번째 장에서 언급된 무역패턴 변화의 원인으로 2001년 이후 본격

적으로 진행된 전자통신 산업에서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및 그 영향을 여러 가지 경험적 자료를 통해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아시아 선발 공업국들의 중국으로의 첨단산업 생산기지 이전의 이론적, 실제적 함의를 기술할 것이다.

I. 글로벌 가치사슬 이론과 아시아 생산네트워크

196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급격한 생산의 세계화를 경험하였다. 이는 해외 직접투자(FDI)를 통한 다국적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과 더불어 생산과정을 분절하고 가치사슬의 각 부분을 최적의 국가나 지역에 위치시키는 전략, 소위 “가치사슬의 분절(slicing the value chains)”을 통해 급진전되었다(Feenstra, 1998; Krugman, 1995). 역외 아웃소싱의 증가는 초기에는 운송비가 낮은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국한되었으나, 최근에는 제조업 전반은 물론 연구개발(R&D)과 같은 각종 서비스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가치사슬도 전통적인 양국간 역외 아웃소싱을 넘어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3개국 이상이 연계되는 글로벌 가치사슬로 확장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면화는 국제교역과 산업발전의 이해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첫째, 완제품 중심, 원산지 표시 중심의 국제무역에 대한 전통적 이해방식은 새로운 생산 및 교역패턴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로, 애플사의 멀티미디어 재생기 아이팟은 전량 중국에서 조립되어 “Made in China”라는 원산지 표시로 전세계에 수출되므로 전량이 중국의 수출액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가치사슬을 뜯어보면 대부분 핵심부품이 해외에서 수입된 반면 완제품 조립을 담당하는 중국의 최종가치에 대한 순기여분은 미미하다(Linden et al., 2009). 아이폰의 경우에도 미국 기업이 핵심 부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이를 중국기업에 의한 순수출 기여분(해외에서 수입된 부품을 제외)과 비교했을 때, 미국은 완제품 기준의 단순 무역수지에서는 적자이

지만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Xing and Detert, 2010). 이렇듯, 각종 중간재의 교역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글로벌가치사슬의 확대에 따른 무역구조의 변화와 국가경쟁력의 추이를 파악하기 힘들다¹⁾.

둘째, 생산과정의 분절과 국제적 확장은 산업발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전통적인 완성품 수출에서 중요했던 수직적 통합과 국가 대표기업(national champion) 중심의 발전전략은 글로벌가치사슬로 재편되는 국제생산체제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다. 오히려 생산시설과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FDI의 유치와 글로벌가치사슬의 참여를 통한 발전이 보다 유효한 전략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가치사슬 전부를 수직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상대적 비교우위가 높은 특정 사슬고리(예: 저개발국의 경우 풍부한 노동력과 저임금에 기반한 완제품 조립)에 참여한 후 점진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사슬고리(예: 부품생산, 제품개발, 마케팅)로 상승이동(upgrading)을 추구하는 전략이다(Gereffi, 2009). 이러한 발전모델의 성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중국이다.

1978년 경제 개혁 이후 중국은 향진기업 중심의 시장생산모델의 도입과 해외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한 기술 습득을 통해 점진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였다(Gereffi, 2005; Lin et al., 2003; Naughton, 2007). 이러한 이행과정은 2001년 국제무역기구(WTO)의 가입으로 가속화되었는데, 이를 기점으로 FDI의 증가와 더불어 급속한 수출증대로 이어졌다(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부터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특히,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수출은 노동집약적, 저기술 기반 품목(예, 의류, 신발, 가구) 중심에서 기술집약적 품목(예, 전자, 기계, 통신)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1993년 50%를 상회했던 저기술 제조업의 비율은 2000년을 기점으로 40% 이하로 떨어지면서 계속 감소한 반면, 1993년 전체 수출액의

1) 이에 따라 최근 국제무역기구는 전통적인 원산지 개념에서 탈피하여 “Made in World”라는 새로운 개념을 주창하고 있고, 국제교역 통계에서도 “부가가치 교역”(trade in value-added), 나아가 “직무 교역”(trade in task)이라는 개념을 반영한 통계의 수집이 논의되고 있다(WTO and IDE-JETRO, 2011).

10%에 불과했던 고기술 제조업의 비중은 2003년 30%를 넘어섰다(Lall and Albaladejo, 2004; Gereffi, 2009). 로드리크(Rodrik, 2006)에 따르면, 중국은 비슷한 소득 수준을 가진 나라들보다 정교하고 기술 수준이 높은 품목들을 더 많이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수출품목의 고도화는 수입품목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이는 상당부분 중국의 대외 수출, 특히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 시장에 대한 수출이 외자기업들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절반 이상의 수출이 외자기업에 의해 이뤄져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들은 많은 부분의 중간재를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 결과 이후에서 살펴보다시피 중국 수출품목의 고도화는 연쇄적으로 후방생산사슬을 통해 생산, 수입되는 품목의 고도화를 낳게 되었다(Gaulier et al., 2007).

이를 통해 중국은 글로벌가치사슬의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임가공무역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2000-2008년 사이 중국은 전세계 임가공 수출(임가공 목적으로 보세구역에 수입되었다가 가공후 재수출되는 경우)의 67%를 차지하였다. 2009년 중국 수입액의 1/3이 이러한 보세 가공을 위해 들어왔고, 수출액의 거의 절반이 임가공지역으로부터 이뤄졌으며, 임가공무역의 2/3을 외자기업이 담당하였다(WTO and IDE-JETRO, 2011: 22-23). 쿵만 등(Koopman et al., 2008: 15)에 따르면, 중국의 가공수출품의 경우 해외에서 조달된 부품이 80%를 넘는 반면, 비가공 수출품의 경우 그 비율은 20%대에 불과했다.

특히 이 가운데 본 논문이 실증하듯이 아시아 생산네트워크는 중국에 대한 중간재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일본 및 한국, 대만등 아시아 신흥개발국들은 중국에 원자재나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가공, 조립하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시장에 완제품을 수출하는 형태의 삼각교역망이 본격화된 것이다. 이러한 역내 분업구조의 형성은 아시아 국가들의 산업구조가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WTO와 일본무역진흥기구 아시아경제연구소(JETRO-IDE)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1985년부터 2005년 사이 아시아 지역에서 국가간 산업구조의 이질성은 높아지고 각국간 경합도는 낮아진 반면 지역 전체 수준에서는 상호보완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전통적으로 역내 교역망의 중심축 및 미국시장으로의 연결점 역할을 했던 일본의 역할이 감소하면서, 2000년 이후 급속하게 중국을 중심으로 생산네트워크가 재편되었다고 보고했다(WTO and JETRO-IDE, 2011: 60-77).

임가공무역이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핵심적 위치와 이를 떠받드는 아시아 생산네트워크의 역할을 고려하면, 중국의 수출구조 고도화가 전적으로 중국기업들이나 외국기업의 중국 소재 공장들에서의 기술고도화와 수출경쟁력 향상에 바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상당부분의 고기술 수출품의 내부를 뜯어보면 해외에서 조달된 고부가가치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중국 공장에서의 부가가치 기여분은 극히 적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아이팟의 경우, 299불의 최종 소매가 가운데 중국 공장에서 완제품 조립에 따른 비용은 4불에 불과하고 이 공장 역시도 대만기업의 소유인 반면, 일본 기업이 생산한 하드디스크와 액정 등에 지불된 비용은 27불을 차지했다(Linden et al.,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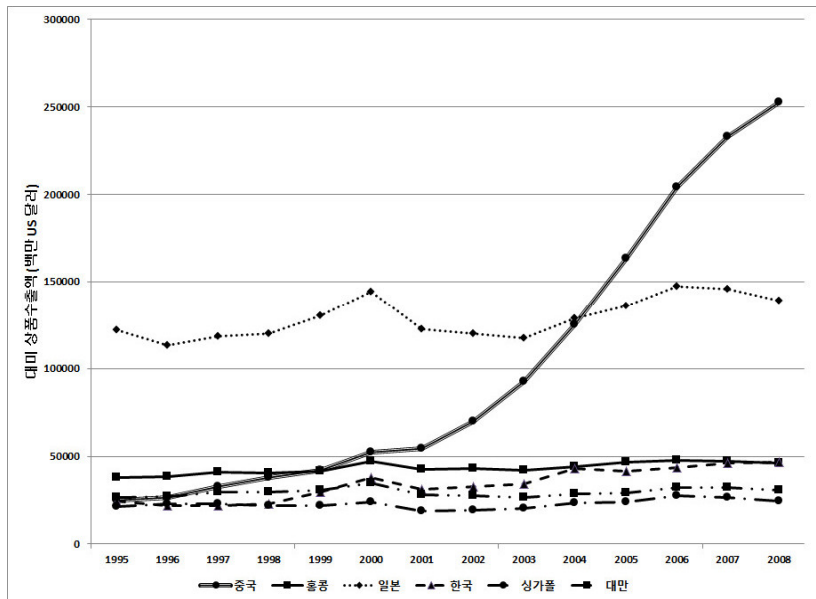
요약하면, 중국의 최근 경제성장, 특히 수출의 비약적 증가는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편입과 사슬 내에서의 지위상승이라는 관점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수출품목의 고도화는 한편으로 외자기업에 의한 임가공 생산과 다른 한편으로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이라는 두 축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다.

II.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아시아 6개국의 무역 형태 변화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세계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서 중국상품의 시장점유율을 크게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Naughton, 2007). 1978년 개방 정책 시행 이후 중국 정부는 과감한 시장 지향적 경제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중국 상품의 대외 수출을 독려했다. 중국의 수출 정책은 특히 노동집약적 상품을 저임금을 바탕으로 값싸게

생산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에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중국의 수출은 개방 이후 저가 노동집약적 상품의 수출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림 1> 중국과 아시아 선발 산업국들의 대미 수출 추이 1995-2008



출처: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Database, IMF (중국, 홍콩, 일본, 한국, 싱가포르)
Bureau of Foreign Trade of Taiwan (대만)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1995년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의 증가 추이는 그 이전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폭발적 증가세를 보여 주고 있다. 1995년 중국의 대미수출액은 247억 달러로 일본과 홍콩의 대미수출 규모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림 1>에서 2001년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액 추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이례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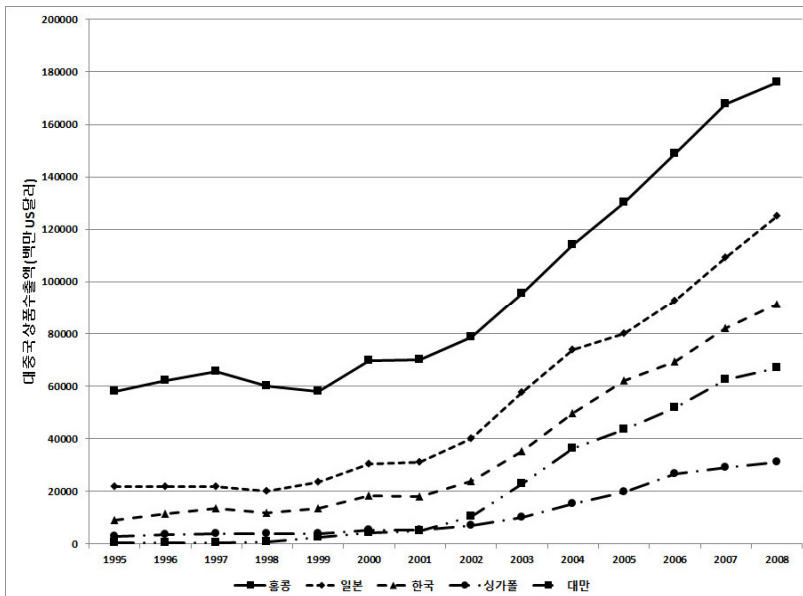
2008년 중국의 대미수출액은 2,528억 달러로서 이는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큰 규모이며, 같은 해 일본의 대미수출액의 두 배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2001년과 2008년 사이 중국의 대미수출액이 연평균 24.9%의 성장을 보인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은 1.9%, 홍콩은 1.3%, 대만은 1.4%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그나마 높은 대미 수출 성장을 보였던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그 성장률은 각각 6.1%, 4.0%에 불과하였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급격한 대미 수출의 증가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대미 수출의 상대적 정체는 얼핏 보기에 가격경쟁력에 바탕을 둔 중국 상품의 세계시장에서의 상품경쟁력 강화, 그리고 동시에 다른 아시아 국가들 상품의 국제경쟁력 상실로 해석될 수 있다.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의류, 신발, 가정용 전자제품 시장에서 중국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한 결과 기존 아시아 국가들은 이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이들 국가의 대미 수출 정체 내지 감소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더 나아가 중국이 전통적으로 아시아 선발 산업국들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던 첨단 상품 수출을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늘려갔다면, 이는 기존 아시아 선발 산업 국가들의 국제 경쟁력 하락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1990년 중반 이후 새롭게 재편되기 시작한 아시아 국가들 간의 국제 분업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선발 산업국들이 후발 산업국가의 등장으로 인해 전통적 우위를 가지고 있던 산업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 그들은 좀 더 가치가 높은 산업 또는 가치사슬(value chain)로 이동함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시아의 선발 산업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반도체 및 정밀전자기기 등 첨단기술 상품 위주로 대미수출구조를 전환하는 데 성공하였다(Mathews and Cho, 2007).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시장에서 노동집약적 중국 상품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집약적 상품들이 직접적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중국의 첨단제품 생산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에 크게 의존한다면 중국의 수출확대는 다른 아시

아 국가들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직결되기보다는 중간재 생산을 통한 수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Greenaway et al., 2008). 그런 의미에서 2001년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수출 규모의 변화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2> 아시아 선발 산업국들의 대중 수출 추이 1995-2008



출처: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Database, IMF (홍콩, 일본, 한국, 싱가포르)
Bureau of Foreign Trade of Taiwan (대만)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아시아 5개국의 대중국 수출 또한 2001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1년 701억 달러였던 홍콩의 대중 수출액은 2008년 1761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대중 수출액은 일본의 경우 309억에서 1,250억 달러로, 한국의 경우 182억에서 914억 달러로, 대만의 경우 49억 달러에서 669억 달러로, 그리고 싱가포르의 경우 53억 달러에서 311억 달러로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2001년에서 2008년 까지 홍콩,

일본, 한국,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의 연평균 대중 수출액 증가율은 각각 12.5%, 20.0%, 23.1%, 46.7%, 25.8%로서 평균 25.6%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의 연평균 대미 수출 증가율인 24.9%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아시아 5개국의 대중 수출액의 급격한 증가는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중국 내수 시장의 확대에 발맞추어 각 국가들이 수출규모를 적절히 확대한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2001년 이후 아시아 5개국의 급격한 대중 수출 증가와 같은 시기 중국의 급격한 대미 수출 증가가 서로 밀접히 관련된 사실임을 주장한다. 2001년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중국이 아시아 첨단산업 생산 네트워크에 본격적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2001년 이후 아시아 선발 산업국들은 대중국 해외직접투자를 늘림으로써 주요 전략 상품의 생산기지 일부를 중국으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중국 현지 생산을 위한 주요 부품은 여전히 본국으로부터 조달하였기 때문에 아시아 선발 산업국들의 대중 수출 규모는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다음 장에서는 왜 아시아 선발 산업국들이 2001년 이후 생산기지의 일부를 중국으로 이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생산기지의 이전이 초래한 무역 형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Ⅲ. 대중국 해외직접투자, 대중국 수출, 그리고 대미 수출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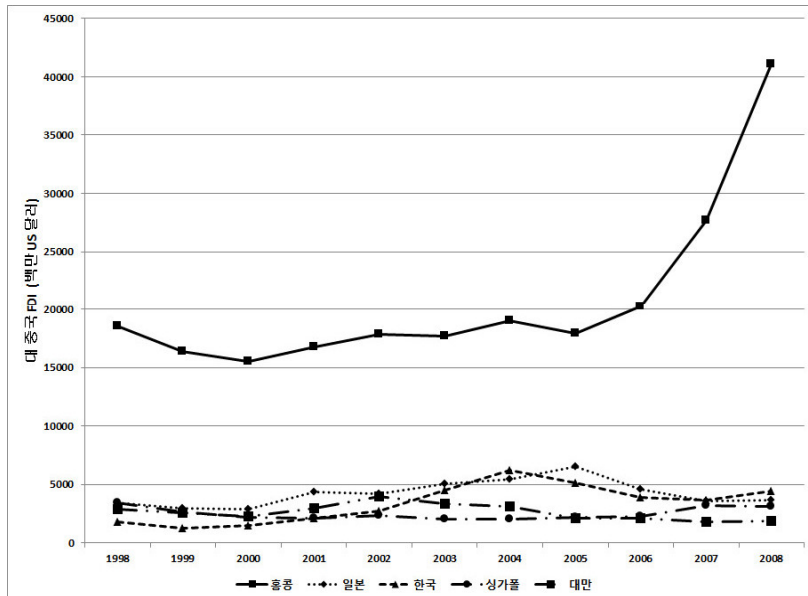
중국의 WTO 가입은 이에 따른 시장 확대, 대중국 무역규제 철폐,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의 적용을 통해 중국 상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중국의 대외수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평가된다(Naughton, 2007).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의 급속한 증가는 일면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이례적인 대미 수출 확대의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또 다른 한 편으로 중국의 WTO 가입은 대중국 FDI를 확대시킨 계기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Jiang, 2003). WTO 가입을 위해 중국은 그 이전에 엄격하게 규제하였던 외국인 투자관련 법안을 개정하였는데, 그 개정의 방향은 대체로 FDI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었다. 우선 기존에 투자가 금지되었던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과 금융, 유통 등의 서비스 산업에 FDI를 허용함으로써 외자기업이 이러한 신규산업에 새로이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 이전 외자기업의 FDI를 주저하게 만들었던 투자조건들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외국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또한 개선되었다. 중국기업과 합작법인 설립 시 중국기업의 우월적 지분을 강제하는 조항, 중국기업으로부터 일정 비율의 상품을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조항, 그리고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수출할 것을 강제하는 조항 등을 폐지한 것은 이러한 사례의 대표적인 예이다.

중국 정부는 대중국 FDI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해외로부터의 활발한 기술이전, 그리고 외자기업과 중국기업 간의 활발한 경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꾀하고자 하였다(Lin et al., 2003; Naughton, 2007). 이를 통해 기존의 저부가가치의 노동집약적 경공업 상품 위주의 수출구조를 고부가가치의 첨단기술 상품 중심의 수출구조로 변모하고자 한 것이다. 실제로 2001년 이후 대중국 FDI의 추세를 살펴보면 중국의 위와 같은 정책적 목표는 순조롭게 달성된 것처럼 보인다. 1999년 -11%, 2000년 1%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대중국 FDI는 2001년 15%의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후 2008년까지 평균 1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2010).

<그림 3>은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아시아 5개국의 대중국 FDI의 추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은 2001년 이후 홍콩이 과거에 비해 좀 더 공격적인 대중국 FDI를 해 왔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홍콩은 중국의 개방 초기부터 대중국 FDI를 주도했던 국가였다. 1998년 대중국 FDI에서 홍콩의 비중은 40.7%에 이를 만큼 압도적이다. 홍콩은 중국과의 문화적 동질성, 중국 토착 세력과의 긴밀한 연계를 바탕으로 중국 내부에 생산기지를 구축함

<그림 3> 아시아 선발 산업국들의 대중 FDI 추이 1998-2008



출처: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으로써 중국내수시장의 공략과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국제시장 공략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였다(Huang, 1998). 홍콩의 대중국 FDI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2001년 167억 달러였던 투자규모는 2008년 410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홍콩의 대중국 투자의 상당부분은 중국 내수시장 확대에 대응하는 생산설비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Shin, 2004). 특히 홍콩의 투자는 홍콩을 둘러싸고 있는 광둥성 일대, 특히 주강삼각주(Pearl River Delta) 유역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광저우, 선전을 중심으로 하는 주강삼각주 지역은 개방초기부터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한 결과 현재 중국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홍콩의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이 지역의 시장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홍콩 주변 지역을 발전시킴으로써 홍콩의 금융 및 서비스 산업의 국제적

허브도시로서의 기능을 지속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결과 홍콩은 대부분의 생산기지를 중국 내륙으로 이전함으로써 홍콩의 금융, 서비스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였다. 즉 과거 홍콩에서 해외로 수출되던 많은 상품들이 이제는 중국 내륙에서 생산되어 해외로 수출되게 된 것이다.

<그림 3>은 또한 다른 아시아국가들의 대중국 FDI 규모 역시 2001년 이후 증가해 왔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1998년 이후 감소하던 대중국 투자규모가 2001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 2001년 22억 달러였던 싱가포르의 투자 규모는 2008년 31억 달러에 이르렀다. 한국, 일본, 대만의 경우 2001년에서 2005년 사이 투자 규모가 큰 규모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²⁾. 일본의 경우 2000년 29억 달러였던 대중 투자규모가 2005년 65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이후 그 규모는 감소하여 2008년 3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경우 2000년 15억 달러였던 대중 투자규모가 2004년 64억 달러에 이르렀고, 이후 감소하여 2008년 3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대만의 경우 2000년 23억 달러였던 대중 투자액이 2002년 40억 달러에 이르렀고, 이후 감소하여 2008년 1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1년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투자 규모 증가는 중국이 정보통신 등의 첨단산업에 대한 해외투자를 허용한 결과이다. 실제로 2001년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투자는 전자통신 산업의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박번순 외, 2008; 한국수출입은행, 2007; Lin, 2004; Shin, 2004). 전통적으로 전자통신 산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던 한국, 일본 등의 아시아 선발 산업국들은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계기로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본격화하였다. 2001년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제조업에 대한 대중국 투자는 글로벌 가치사슬 이론이 제시하는 생산과정을 분절화시켜 생산과정별

2) 한국, 일본, 대만의 2006년 이후 FDI 감소 원인은 2005년을 기점으로 대규모 생산기지 이전이 일단락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에는 생산기지 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지만, 생산기지 건설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추가적인 투자가 크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로 가장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한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재배치하는 소위 “가치 사슬의 분절화(slicing the value chains)”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즉 노동집약적인 조립 생산 공정을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중국에서 수행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고, 그 생산비 절감의 효과를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생산과정의 국제적 재배치 과정은 자본 투자 국가와 자본 수취국가의 무역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본 수취국가에 건설된 생산기지가 그 조립생산에 필요한 첨단부품들을 자본 투자국으로부터 꾸준히 수입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한국의 기업이 텔레비전 조립 공장을 중국에 건설한 경우 그 주요부품인 액정디스플레이(liquid crystal display) 등 첨단부품을 한국의 기업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중국의 기술수준이 상당히 발전하여 선발 개발도상국들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첨단부품 생산에 있어 여전히 아시아 선발 공업국들과의 격차가 존재한다(박필재, 2008). 따라서 첨단부품의 경우 그 생산에 있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선발공업국에서 그 부품을 생산하고, 이를 중국으로 수입한 후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여 조립하고 다시 그 최종생산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 세계시장에서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생산과정이 된다.

새로운 생산과정의 지리적 재배치는 아시아 국가들의 무역형태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2001년 이전 아시아 국가들 간의 분업구조는 중국이 저위 기술 노동집약적 산업생산을 분담하고,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선발 공업국들이 중고위 기술 기술집약적 산업생산을 분담하여 세계로 수출하는 구조였다(Lall and Albaladejo, 2004). 하지만 2001년 중국의 투자 규제 완화 이후 아시아 선발 산업국들은 기존의 비교우위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전자통신 산업 등의 조립생산 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조립생산을 위한 첨단 주요 부품의 대중국 수출이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UN Comtrade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외투자 규제 완화 이전인

1998년과 규제 완화 이후인 2008년의 아시아 선발 공업국들의 대중국 10대 주요 수출 품목들을 비교해 보았다.

<표 1> 1998년과 2008년 일본의 10대 대중 수출 품목 비교

순위	1998			2008		
	HS 92 Code	상품 설명	%	HS 92 Code	상품 설명	%
1	8542	전자집적회로	2.66%	8542	전자집적회로	6.48%
2	8473	커버, 휴대용 케이스를 제외한 기계에 사용되는 부품	2.60%	9999	비분류 상품	5.92%
3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2.16%	8708	자동차 부품	3.85%
4	8479	기타 기계류 (건축용, 식품제조용, 금속가공용 등)	1.95%	2710	(원유를 제외한) 석유와 역청유 및 웨이스트 오일	3.53%
5	9999	비분류 상품	1.93%	8479	기타 기계류 (건축용, 식품제조용, 금속가공용 등)	3.34%
6	854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1.65%	8703	버스를 제외한 승용 자동차	2.99%
7	8703	버스를 제외한 승용 자동차	1.62%	2902	환식탄화수소 (유기화합물의 일종)	2.06%
8	7304	철강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1.49%	8529	라디오, TV 수신기 부품	1.92%
9	8402	증기발생보일러와 과열수 보일러	1.44%	8443	직물 또는 사무용 인쇄기 및 이들의 부품	1.59%
10	8517	전화기 및 기타 음성 영상 송수신 기기	1.42%	8507	축전지	1.55%

출처: U.N.Comtrade Database

<표 2> 1998년과 2008년 홍콩의 10대 대중 수출 품목 비교

순 위	1998			2008		
	HS 92 Code	상품 설명	%	HS 92 Code	상품 설명	%
1	8473	커버, 휴대용 케이스를 제 외한 기계에 사용되는 부 품	3.24%	8542	전자집적회로	20.01%
2	8542	전자집적회로	2.38%	8473	커버, 휴대용 케이스를 제외한 기계에 사용되는 부품	6.76%
3	8529	라디오, TV 수신기 부품	2.30%	8517	전화기및 기타 음성 영상 송수신 기기	5.86%
4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2.27%	8529	라디오, TV 수신기 부품	4.22%
5	3903	스티렌의 중합체 (플라스 틱 원료)	2.17%	8471	자동자료 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컴퓨터)	3.70%
6	8522	오디오 녹음, 비디오 녹화 기에 사용되는 부품	1.97%	854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2.69%
7	8517	전화기및 기타 음성 영상 송수신 기기	1.95%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	2.53%
8	4104	소 또는 마속 동물의 유연 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 한 원피	1.94%	8443	직물 또는 사무용 인쇄기기 및 이들의 부속품	2.52%
9	8471	자동자료 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컴퓨터)	1.93%	8522	오디오 녹음, 비디오 녹화기에 사용되는 부품	2.49%
10	2710	(원유를 제외한) 석유와 역청유 및 웨이스트 오일	1.89%	8504	변압기 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	2.47%

출처: U.N.Comtrade Database

<표 3> 1998년과 2008년 싱가포르의 10대 대중 수출 품목 비교

순 위	1998			2008		
	HS 92 Code	상품 설명	%	HS 92 Code	상품 설명	%
1	8473	커버, 휴대용 케이스를 제 외한 기계에 사용되는 부 품	13.56%	8542	전자집적회로	31.42%
2	2710	(원유를 제외한) 석유와 역청유 및 웨이스트 오일	9.36%	2710	(원유를 제외한) 석유와 역청유 및 웨이스트 오일	12.16%
3	2402	담배 또는 담배 대용물	9.32%	8473	커버, 휴대용 케이스를 제 외한 기계에 사용되는 부 품	5.63%
4	8523	디스크, 테이프 및 스마트 카드 등 기록용 매체	6.95%	854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 이스	3.93%
5	8542	전자집적회로	6.00%	8523	디스크, 테이프 및 스마트 카드 등 기록용 매체	3.06%
6	8471	자동차료 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컴퓨터)	4.85%	8471	자동차료 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컴퓨터)	2.52%
7	3901	에틸렌의 중합체 (플라스 틱 원료)	2.67%	3901	에틸렌의 중합체 (플라스 틱 원료)	2.24%
8	8529	라디오, TV 수신기 부품	1.63%	8443	직물 또는 사무용 인쇄기 기 및 이들의 부속품	1.90%
9	3902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의 중합체 (플 라스틱 원료)	1.53%	8418	냉장및냉동기구	1.83%
10	2713	석유코크스 석유아스팔트 및 기타 석유 또는 역청유 의 잔재물	1.51%	9999	비분류 상품	1.71%

출처: U.N.Comtrade Database

<표 4> 1998년과 2008년 한국의 10대 대중 수출 품목 비교

순 위	1998			2008		
	HS 92 Code	상품 설명	%	HS 92 Code	상품 설명	%
1	3901	에틸렌의 중합체 (플라스틱 원료)	4.88%	9013	액정 디스플레이 (LCD)	9.96%
2	4104	소 또는 마속 동물의 유연 처리 또는 크리스탈 처리 한 원피	3.75%	8542	전자집적회로	8.31%
3	8540	열전자관 냉음극관 또는 광전관(진공관의 일종)	3.54%	8517	전화기 및 기타 음성 영상 송수신 기기	5.82%
4	4810	한면 또는 양면을 도포한지와 판지	3.42%	2710	(원유를 제외한) 석유와 역청유 및 웨이스트 오일	5.70%
5	3902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의 중합체 (플라스틱 원료)	2.85%	8471	자동자료 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컴퓨터)	5.09%
6	2902	환식탄화수소 (유기화합물의 일종)	2.80%	2902	환식탄화수소 (유기화합물의 일종)	4.43%
7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2.66%	8473	커버, 휴대용 케이스를 제외한 기계에 사용되는 부품	3.71%
8	5503	합성스테이플 섬유	2.59%	2917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 (유기화합물의 일종)	3.43%
9	5903	플라스틱을 도포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2.56%	8708	자동차 부품	2.65%
10	6002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2.43%	8479	기타 기계류 (건축용, 식품제조용, 금속가공용 등)	1.87%

출처: U.N.Comtrade Database

일본의 경우 1998년 전자통신 제품에 사용되는 전자집적회로(1위), 반도체 디바이스(6위)의 대중국 수출액은 당해 중국 수출 총액 중 4.51%에 불과하였다(<표 1> 참조). 하지만 2008년 전자통신 부품(1위인 전자집적회로와 8위인 라디오, TV수신기 부품)의 수출비중은 8.4%로 크게 증가하였다. 다른 아시아 공업국들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더욱 극적인 변화를 보여 준다³⁾. 홍콩의 전자집적회로 중국 수출액은 대중국 수출총액 대비 1998년 2.38%(2위)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 20.01%(1위)로 18.5배 증가하였다(<표 2> 참조). 싱가포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998년 대중국 수출총액 대비 6%(5위)에 불과하던 전자집적회로의 수출은 2008년 31.42%(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표 3> 참조). 한국의 경우 1998년에는 10대 중국 수출 품목 중 전자부품과 관련된 품목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8년에는 액정디스플레이(LCD)가 대중국 수출 총액 대비 9.96%를 차지함으로써 1위, 전자집적회로가 8.31%로서 2위를 차지하였다(<표 4> 참조).

정리하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로 야기된 아시아 선발 공업국들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전자통신 사업에 집중되었고, 이는 중국과 이들 국가 간의 무역 양상에 전면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중국에 새롭게 건설된 조립생산 기지에 아시아 선발 산업국들이 자국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이들 국가의 대중국 수출이 급격하게 확대된 것이다. 중국의 수출품목이 그 발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첨단화되어 있다는 지적(Rodrik, 2006)의 이면에는 이와 같은 2001년 이후 선발 아시아 산업국들과 중국 사이의 첨단 제품 생산과 관련한 국제 분업 관계의 재편이 놓여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아시아 선발 공업국들의 대중국 전자통신 부품 수출 증대는 다른 한편으로 외자기업이 아닌 중국 기업들이 아시아 선발 산업국으로부터 중간재들을 대량으로 수입한 결과에 기인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는 중국정부가 첨단 산업에 대한 해외자본투자를 허용한 배경이기도 하다. 즉 중국의 초기 정보통신 산업은 외국기업에 의해 주도될 수밖에 없지만, 이후 기

3) 대만의 경우 UN회원국이 아닌 관계로 UN Comtrade 데이터의 조사대상 국가에서 제외되어 있어 대중국 주요수출 품목 비교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었다.

솔이전 등의 파급효과를 통해 중국 기업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섭과 나베시마(Yusuf and Nabeshima, 2010)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첨단제품 수출은 여전히 중국기업에 의해 주도되기 보다는 외자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중국이 최근 보여 준 대미 무역흑자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는 사실상 과장된 측면이 있다. 2001년 이후 아시아 선발 산업국들이 전자통신 산업의 조립생산 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한 결과, 중국에서 조립된 최종생산물들은 모두 중국의 수출액으로 계상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사실 그 부가가치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주요 부품들은 대개 아시아 선발 산업국에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된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폰이 중국 사업장에서 최종 조립되어 미국으로 수출된 경우 아이폰의 최종가격이 모두 중국의 수출액으로 잡히게 된다. 그러나 실제 중국이 아이폰의 생산 과정에 얻게 되는 부가 가치는 전체 가치의 1.8%에 불과하다(Kraemer et al., 2011). 마찬가지로 아시아 선발산업국들의 투자에 의해 설립된 조립공장에서 생산된 첨단산업 제품의 최종가치 중 중국이 차지하는 기여분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얻고 있는 이익 중 상당 부분은 사실 아시아 선발 공업국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익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시아 선발 산업국들이 2001년 이후 정체하고 있는 대미 수출을 확대되고 있는 대중수출을 통해 상쇄하고 있다는 사실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결국 2001년 이후 변화하고 있는 아시아 산업국들의 무역구조는 이 시기 발생한 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의 재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IV. 결론 및 함의

2001년 이후 아시아 선발 산업국들은 중국의 전자통신 사업에 대한 해외투자 허용을 계기로 중국 현지에 생산조립공장을 설립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2001년 이후 이들의 대중국 투자 규모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전자통신 사업의 조립생산 기지 이전은 아시아 선발 산업국들과 중국의 대미수출에 있어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중국의 대미수출은 이후 급격히 확대된 반면 아시아 선발 공업국들의 대미수출은 감소 또는 정체하게 되었다. 기존에 아시아 선발 산업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던 첨단제품들이 중국 생산기지에서 조립되어 미국으로 수출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조립생산에 필요한 부품 조달을 위해 아시아 선발 산업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반제품 물량은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2001년 이후 아시아 선발산업국의 대중국 수출의 급격한 증대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 생산네트워크의 재편은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대미수출 증가, 아시아 선발공업국의 대미 수출 감소로 나타나 중국의 부상이 아시아 선발산업국들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글로벌 가치사슬 이론적 시각에서 본다면 중국의 대미 수출 증가, 아시아 선발산업국들의 대미 수출 감소, 그리고 아시아 선발산업국들의 대중 수출 증가는 결국 하나의 원인, 즉 전자통신 산업 생산기지의 중국 이전으로부터 비롯된 다양한 결과 중 하나일 뿐이다. 아시아 생산네트워크 내에서 중국으로의 최종 생산기지 이전은 중국의 대미 수출 규모 확대를 필연적으로 수반하였다. 중국의 대미 수출액 중 상당 부분의 가치는 사실 다른 아시아 선발 산업국에서 부가된 것이다. 따라서 최근 중국의 이례적인 대미 무역흑자의 상당 부분 역시 아시아 선발 공업국에 귀속되어야 할 부가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대미 흑자 규모에 대한 과도한 경계, 그리고 아시아 선발공업국의 대미 흑자 축소에 대한 과도한 우려 역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WTO 가입 이후 무역과 관련된 지난 십여년간의 추세가 향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첫째, 중국기업들의 부품 생산능력의 향상은 앞으로 중국 수출에서 해외조달 부분의 비중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근 아시아투입산출표(Asian Input-output Table)에 기반한 우치다와 이노마타(Uchida and Inomata, 2009)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과 2008년 사이 중국의 수직전문화(vertical specialization) 정도는 완제품 생산에

비해 중간재 생산에서 더 빠르게 증가하였고, 전통적인 역내 삼각교역망 내에서도 중국의 중간재 생산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일본 제외)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중간재를 생산하여 다시 역내 국가에 재수출하는 형태의 새로운 삼각교역이 등장하고 있다. 그 결과 “포괄적이고 정교한 생산네트워크가 일본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사이에 형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품들은 여러 차례 국경을 가로지르면서 반복적으로 부가가치가 더해지고 있다”(Uchida and Inomata, 2009: 78-79).

둘째,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와 개발도상국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도 향후 중국의 교역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중국 내수시장의 확대와 수요의 고도화는 이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중간재 수입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단, 가속화의 정도는 중국내 부품 소재부문이 얼마나 빨리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따라잡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한편,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의 수요위축은 상대적으로 중국의 수출에서 신흥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의 비중을 높일 전망이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의 내수시장이나 개도국 시장을 목표로 한 상품들이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 저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는 만큼, 이는 중국 수출의 고도화를 늦추고, 필요로 하는 중간재의 기술 수준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Kaplinsky et al., 2011; Kaplinsky and Messner, 2008). 이 경우 중국 내에서 조달된 부품을 이용한 수출의 비중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와 아시아 생산네트워크를 통한 중국의 수출고도화에 관한 향후 추세는 결국 자국내 부품소재부문의 고도화 속도와 내수시장 및 개도국 시장으로의 수요처 다변화 정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2011년 11월 1일 접수
2012년 6월 1일 수정 완료
2012년 6월 5일 게재 확정

참고문헌

- 박변순, 김정우, 박성배, Kao Jen-Shan, Liu Yau-Jr, Lin Hsiu-Ying, Sung Ming-Te. 2008.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투자』. 삼성경제연구소.
- 박필재. 2008. 『한중일 3국의 기술수준별 무역구조 분석』. 한국무역협회 국제 무역연구원.
- 유진석. 2001.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영향과 대응.” 『Issue Paper』. 삼성 경제연구소.
- 한국수출입은행. 2007. 『일본의 대중국 투자 현황과 시사점』. 중국경제정보.
- 한진희, 최용석. 2008. “중국의 부상이 한국 제조업의 생산 및 투자에 미친 영향.” 『KDI 정책포럼』. KDI.
- Bureau of Foreign Trade of Taiwan. 2011. Trade Statistics. <http://eweb.trade.gov.tw>
- Feenstra, Robert C. 1998. “Integration of Trade and Disintegration of Production in the Global Econom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2:31-50.
- Gaulier, Guillaume, Françoise Lemoine, and Deniz Ünal-Kesenci. 2007. “China’s Integration in East Asia: Production Sharing, Fdi & High-Tech Trade.” *Economic Change and Restructuring* 40:27-63.
- Gereffi, Gary. 2009. “Development Models and Industrial Upgrading in China and Mexico.”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5:37-51.
- Greenaway, David, Aruneema Mahabir, and Chris Milner. 2008. “Has China Displaced Other Asian Countries’ Exports?” *China Economic Review* 19:152-169.
- Huang, Yasheng. 1998. *FDI in China : An Asian Perspective*. Hong Kong: Chinese University Press ;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IMF. 2001.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Database. <http://www.imf.org/>

external/pubs/cat/longres.cfm?sk=19305.0

- Jiang, Xiaojuan. 2003. *FDI in China : Contributions to Growth, Restructuring, and Competitiveness in China in the 21st century*. New York: Nova Science Publishers.
- Kaplinsky, Raphael and Dirk Messner. 2008. "Introduction: The Impact of Asian Drivers on the Developing World." *World Development* 36:197-209.
- Kaplinsky, Raphael, Anne Terheggen, and Julia Tijaja. 2011. "China as a Final Market: The Gabon Timber and Thai Cassava Value Chains." *World Development* 39:1177-1190.
- Koopman, Robert, Zhi Wang, and Shang-Jin Wei. 2008. "How Much of Chinese Exports Is Really Made in China? Assessing Domestic Value-Added When Processing Trade Is Pervasiv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No. 14109.
- Kraemer, Kenneth L., Greg Linden, and Jason Dedrick. 2011. Capturing Value in Global Networks: Apple's iPad and iPhone. Working Paper in Personal Computing Industry Center of UC Irvine.
- Krugman, Paul. 1995. "Growing World Trade: Causes and Consequence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95:327-377.
- Lall, Sanjaya and Manuel Albaladejo. 2004. "China's Competitive Performance: A Threat to East Asian Manufactured Exports?" *World Development* 32:1441-1466.
- Lin, Chu-Chia. 2004. Taiwan: Investment in China and Structure Change. . Paper prepared for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emergence of the Chinese Economy and the East Asia's Response' organized by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itute.
- Lin, Justin Yifu, Fang Cai, and Zhou Li. 2003. *The China Miracle : Development Strategy and Economic Reform*. Hong Kong: Chinese

- University Press.
- Linden, Greg, Kenneth L. Kraemer, and Jason Dedrick. 2009. "Who Captures Value in a Global Innovation Network?: The Case of Apple's iPod." *Communications of the ACM* 52:140-144.
- Mathews, John A. and Tong-song Cho. 2007. *Tiger Technology: The Creation of a Semiconductor Industry in East Asia*. Cambridge: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2011. *China Statistics Year Book, 1999-2009*.
- Naughton, Barry. 2007. *The Chinese Economy : Transitions and Growth*. Cambridge Mass.: MIT Press.
- Rodrik, Dani. 2006. "What's So Special About China's Exports?" *China & World Economy* 14:1-19.
- WTO and IDE-JETRO. 2011. "Trade Patterns and Global Value Chains in East Asia: From Trade in Goods to Trade in Tasks."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 Shin, Jang-Sup. 2004. Response to the Emerging Chinese Economy: Singapore vs. Hong Kong. Paper prepared for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emergence of the Chinese Economy and the East Asia's Response' organized by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itute.
- U.S. Census Bureau, Foreign Trade Division. 2011. <http://www.census.gov/foreign-trade/index.html>
- U.N. Comtrade Database. 2011. <http://comtrade.un.org/>
- Xing, Yuqing and Neal Detert. 2010. "How the Iphone Widens the United States Trade Deficit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 Yusuf, Shahid, and Kaoru Nabeshima. 2010. *Changing the Industrial*

Geography in Asia : The Impact of China and India. Washington
D.C.: World Bank.

**China's Post-WTO Export Growth and the
Restructuring of Asian Production Network:
A Global Value Chain Approach**

Hang Young Lee
Duke University

Joonkoo Lee
Duke University

Abstract

China's trade surplus with the U.S. has persistently increased since 2001 when China participated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China's WTO entry is assessed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its products in the global market and to increase its exports, especially in the U.S. However, in this paper we argue that increased Chinese exports to the U.S. include the effect of restructured Asian production network, which has been paid less attention to. China's WTO entry stimulated investment in China from Asian countries because China's entry facilitated a fuller incorporation of China's market into global markets and the Chinese economy's compliance with global standards. This new surg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into China from Asian countries has restructured Asian production network; as early-industrialized Asian countries relocated their production base to China; Chinese production system has been more integrated to Asian production network. As a result, restructured Asian production network, we argue, has expanded China's exports to U.S. while constraining the growth of U.S. exports from other Asian countries. At the same time, stagnant U.S. exports from those Asian countries were compensated by their increased exports to China. Thus, we call attention to the global value chain perspective as a way to understand recent trends in international trades between Asian countries and the U.S.

**Key words: Asian Production Network, Global Value Chain Perspective,
International Trade, FDI**